

<전초>

- ① “영계론 말씀은 재미로
호기심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듣는 것이 아니다.”
- ㉠ 하나님 말씀은 관심만 가지고 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원과 심판이 나뉘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계론은 나중에 전하는 겁니다.
잘 안 하는 거고.
- ㉡ “믿지 않고 그냥 참고적으로 들죠 뭐” 하지만, 흑암한테 조건을 타요.
말씀을 확실히 믿고 시인하고 깨달아야지
㉢ 말씀에 능력이 나가고
㉣ 하나님의 권위가 서게 되고
㉤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 ② 말씀들을 때 항상 깨어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예비해야 됩니다.
- ㉦ 대통령 명령을 한번 거스르면 그 사람 평생동안 출세하기 어렵듯이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들으면 쓰임 받는데 차질이 생긴다.
말씀들을 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띄이는 겁니다.
- ㉧ “말씀 다 듣고 나서 깨달은 다음에 잘하죠 뭐.” 하는데
말씀 듣고 나서 깨달은 다음에는 누구든지 다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뽐히기가 어려워요.
- ㉨ 말씀들을 때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큰 거목이 될 수 있고 인물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령에 발판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 ③ 말씀들을 때 그냥 참고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말씀이고
㉪ 역사를 일으키고
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살 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 쓰고서 사람이 100년, 120년 살죠, 일찍 죽는 사람은 물론 뭐 60 년밖에 못사는 사람도 있고 재수 나쁘면 교통사고 나서 더 일찍 죽는 사람도 있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과연 사후의 세계는 없는가? 죽고 나서 가는 세계가 영계입니다.				
	① 영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영계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 영계란 ?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88 750 391 1310"> ㉠ 학자들은 </td><td data-bbox="391 750 1394 1310"> 학자들은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뒤라 얘기 하나면) “과학적인 의미로 볼 때, 인간에 잠재능력과 신비적인 현상이 아니겠느냐?!” 주장하지만 영계는 그렇게 주장한다고 얻는 게 아니란 거예요. ㉡ “여러분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안보여도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겁니다, ㉢ 바람이 보여야 믿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람도 갈대만 꺾는 게 아니라 강한 태풍은 건물도 무너뜨리고 아주 커다란 나무들도 부러트리며 나가잖아요, ;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바람에 위력이 셉니다, ; 보이지 않는 세계라 해서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계도 실제 존재하는 세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td></tr> <tr> <td data-bbox="288 1310 391 1854"> ㉡ 무신론자들은 </td><td data-bbox="391 1310 1394 1854"> ㉡ 영계에 대해서 얘기하길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다는 거예요. 예화) “옛날에 우리 인류에 기원이 600 만 년 전이다.” 그러니까 “그때 살아봤어야 믿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고 살 수 없다. ㉢ <u>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접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u> <u>어떤 것은 깨달아서 믿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u> 자기가 다 겪어봐서 살 수 없잖아요. 예화 “뭐 옛날에 우리 세종대왕이 훈민정훈 만든 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걸듯이 안 봤어도 믿어야 될 게 있어요. </td></tr> </table>	㉠ 학자들은	학자들은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뒤라 얘기 하나면) “과학적인 의미로 볼 때, 인간에 잠재능력과 신비적인 현상이 아니겠느냐?!” 주장하지만 영계는 그렇게 주장한다고 얻는 게 아니란 거예요. ㉡ “여러분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안보여도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겁니다, ㉢ 바람이 보여야 믿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람도 갈대만 꺾는 게 아니라 강한 태풍은 건물도 무너뜨리고 아주 커다란 나무들도 부러트리며 나가잖아요, ;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바람에 위력이 셉니다, ; 보이지 않는 세계라 해서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계도 실제 존재하는 세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 무신론자들은	㉡ 영계에 대해서 얘기하길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다는 거예요. 예화) “옛날에 우리 인류에 기원이 600 만 년 전이다.” 그러니까 “그때 살아봤어야 믿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고 살 수 없다. ㉢ <u>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접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u> <u>어떤 것은 깨달아서 믿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u> 자기가 다 겪어봐서 살 수 없잖아요. 예화 “뭐 옛날에 우리 세종대왕이 훈민정훈 만든 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걸듯이 안 봤어도 믿어야 될 게 있어요.
㉠ 학자들은	학자들은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뒤라 얘기 하나면) “과학적인 의미로 볼 때, 인간에 잠재능력과 신비적인 현상이 아니겠느냐?!” 주장하지만 영계는 그렇게 주장한다고 얻는 게 아니란 거예요. ㉡ “여러분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안보여도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겁니다, ㉢ 바람이 보여야 믿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람도 갈대만 꺾는 게 아니라 강한 태풍은 건물도 무너뜨리고 아주 커다란 나무들도 부러트리며 나가잖아요, ;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바람에 위력이 셉니다, ; 보이지 않는 세계라 해서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계도 실제 존재하는 세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 무신론자들은	㉡ 영계에 대해서 얘기하길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다는 거예요. 예화) “옛날에 우리 인류에 기원이 600 만 년 전이다.” 그러니까 “그때 살아봤어야 믿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고 살 수 없다. ㉢ <u>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접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u> <u>어떤 것은 깨달아서 믿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u> 자기가 다 겪어봐서 살 수 없잖아요. 예화 “뭐 옛날에 우리 세종대왕이 훈민정훈 만든 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걸듯이 안 봤어도 믿어야 될 게 있어요.				

(1)
영
계
란
?

② 영계론은 영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사후에 세계는 실제 존재하는 세계이지 절대 허구가 아니다.

㉠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사후에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영계는 실제 존재하는 세계”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처럼

마음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처럼, 영은 영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입니다.

㉡ 우주만물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양단의 세계로 존재합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유형세계	무형세계
유무형 실존주의 세계	

(2) 성경을 통한 영적 경험의 세계

“영계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

(2) 성경을 통한 영적 경험의 세계 ①

^ 히 8 / 5 v

히 8/5
;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신360)

㉠ 하늘 - 땅

하늘 (세계)	땅 (세계)
땅의 원판의 세계 근원의 세계	· 하늘 세계의 복제판처럼 만든 세계 - 지구촌의 세계는 하늘세계를 닮아있다, · 하나님이 살고 계신 하늘의 세계를 본떠서 지구촌을 만들었다 말씀하셨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대해서 아는 방법은?
; 육계를 잘 알면 영계를 알 수 있어요. 왜냐? 닮았으니까.

㉢ 예화) 우리가 건물 지을 때 투시도나 모형도 만들잖아요. 그것을 자세히 보면 어떤 건물이 지어질지 알 수 있죠.

㉣ 모형도를 자세히 보면 원본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구촌의 창조의 근본세계를 잘 깨닫게 되면 하늘 나라의 세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2) 성경을 통한 영적 경험의 세계
②
^
요
3
/
12
v

요3/12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신146)

㉠ 제자들이 하늘 나라에 대해서 자꾸 물으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먼저는 너희가 내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믿고 시인할 때 하늘 역사의 비밀도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훈말씀】

- ㉡ 영계론 말씀도 왜 나중에 가르쳐 주냐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가르쳐 줘 봤자
"그냥 옛날 얘기하듯이 밖에 안 들린다," 는 얘기에요,
- ㉢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을 자격과 심령에 발판이 있어야
영계론은 들을 수 있다," 는 얘기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을 깨달아야 합니다.

㉣ 자기 영이 성장하면 할수록 영계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어린 아이가 보는 영계하고 어른 보는 영계하고 달라요.

어린아이가 보는 영계	어른이 보는 영계
어린 아이가 미국의 디즈니 월드에 가서 혼이 빠질 정도로 재미있게 놀다가 와서 떠벌이길 "미국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더라," 면서 디즈니 월드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만 생겼겠습니까? ; 어린 아이 수준에서는 그런 얘기밖에 할 수 없다.	<u>장성된 사람이 될수록</u> <u>영계에 대해서</u> 잘 깨달을 수가 있고 제대로 전 할 수가 있고 제대로 깨우칠 수 있어요.

㉤ 하나님과 수수일체가 될 때 영계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날 종교세계를 보면

영계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입신해서 영계에 갔다 온 사람들이 영계에 대해서 주장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부분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나와야 됩니다.

(2) 성경을 통한 영적 경험의 세계
 ③
 12 / 1 ~ 4 V

고후12/1 :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 :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십 사 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 :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 :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 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로다." (신299)

; 사도 바울도
 자신이 경험한 하늘나라에 대한 영적체험(계시와 환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이 하나님과의 교류에 의해서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는 얘기.

- ㉠ **영적 세계**는 영으로만 가서 볼 수 있는 세계.
육으로는 영에 대해서 전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 ㉡ 성경에 내용들은

영계
 육계
 하나님의 역사
 근본적인 세계

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가장 정확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 "영계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는 얘기.

- ㉢ 성경 해석에 의해서 영계·육계의 세계의 비밀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근본을 깨닫고 아는 자가 영계에 갈 때,
영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다.

영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간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디즈니 월드에 가서 본 것이 미국 전체인냥 생각하듯이
낙원이나 선영계나 음부에 갔다 와서
그것이 마치 영계의 전체인냥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영계는 천층만층 구만층이란 거예요.

 ㉣ 적어도 성경에 대한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수수관계가 이뤄진 자가
영계에 대해서 논할 때 영계에 대한 근본을 알 수가 있다.
 ; 영계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예요.
 이 정도 영계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참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2) 성경을 통한 영적경험의 세계 ③ ▲고후 12/1~4 V	㉔ 우리는 그 동안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㉕ 영계는 천국과 지옥 두 갈래로 되어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음부에 대해서도, 무저갱에 대해서도 영옥에 대해서도, 낙원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더라 거예요. ; 성경은 짜 맞춘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책이 아니다. ㉖ <u>기도도 많이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u> ㉗ <u>말씀에 대한 가치성을 느끼게 되고</u> ㉘ <u>말씀에 권위를 상실하지 않고 들을 수가 있다.</u> 분별력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㉙ <u>하나님이 더 깊은 말씀과 속시원한 말씀에 비밀을 전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u> ㉚ <u>지구촌에는 육신을 쓴 인간들이 살고있듯이,</u> <u>하늘나라에도 영인체들이 살고 있다는 얘깁니다.</u>				
(2) 성경을 통한 영적경험의 세계 ④ ▲행 7/55 ~ 56 V	행7/55 :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 :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한데” (신199) ; 스데반이 영안이 뜨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겁니다. ㉛ <u>영을 이방적으로 표현하면 「귀신」이나 「혼백」으로 표현하는데</u> <u>인간들에게 자기에 본질체인 영인체가 다 있다는 거예요.</u> ㉜ 이 세상 살던 사람들이 육신이 죽으면 그 영인체는 영계의 세계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하늘(영계·영·무형세계·형이상학)</th><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땅(육계·육·유형세계·형이하학)</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㉝ 육계의 원본·원판·근원의 세계</td><td style="text-align: center;">영계의 모형세계</td></tr> </tbody> </table> ㉞ 우리가 하늘세계를 못 보기 때문에 하늘세계의 모형인 육계를 통해서 원본이 되는 영계의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육인체를 통해서 자기의 영인체를 알 수 있다. 자기의 영인체는 자기의 육인체를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영계·영·무형세계·형이상학)	땅(육계·육·유형세계·형이하학)	㉝ 육계의 원본·원판·근원의 세계	영계의 모형세계
하늘(영계·영·무형세계·형이상학)	땅(육계·육·유형세계·형이하학)				
㉝ 육계의 원본·원판·근원의 세계	영계의 모형세계				

[변화산상의 이야기]

(신28)

마17/1 : "옛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 :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 제자들이 영안이 뜨여서 예수님의 영인체를 보게 된 거예요.

3 :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와 더불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것을 의논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영안이 뜨여서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제자가 할 수 있는 베드로 · 야고보 · 요한에게

역사적인 장면을 보게 할 거야. 증인으로 서게 할려고.

4 :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종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 "베드로가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혼돈할 정도로 많이 덮아있다는 얘기.

영계랑 육계랑 덮아있어서 영계가 육계인줄 착각했다.

그 나라는 자기 공적대로 신앙의 집들이 다 있는데.

초막집 같은 건 짓고 살지도 않는다는 거야.

5 :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지라"

; 제자들이

영계에 대한 세계도 모르면서 무식하게 초막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눈을 가리어서 순간에 영계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의 음성을 들었죠.

".....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지라." 이렇게 얘기했죠.

; 영인체는 육인체와 혼돈을 일으킬만큼 똑같다는 얘기에요.

자기 영인체는 자기 육인체를 덮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성경을 통한 영적경험의 세계 ⑤ ~ 1 ^ 비판과 신앙의 이야기 || 마 17 / 1 ~ 5 V ㉠

㉠ “저는 육인체가 그다지 이쁘지 않은데 어떻게 할까요?”

고민스러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고민할 거 없어요.

- ㉠ 영의 얼굴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예쁜 사람들은 영의 얼굴이 예쁘고 아름다워요.
- ㉡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면 영인체가 빛을 발하고, 멋있게 성장 할 수가 있다.

예화)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되고 키도 좌우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우유 많이 먹은 사람 키가 크다고 하잖아요.

; 어떠한 진리를 듣고 성장하냐에 따라서 영인체의 빛이 좌우되는 거예요.

- ㉢ 진리를 못 들으면 아무리 잘생겨도 소용없어요.
우리 육신도 못 먹으면 물결이 흉악하듯이
영인체도 진리의 말씀을 못 들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얘이에요.
이렇듯이 자기의 영인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 “나는 남자로 태어나는 게 한스럽다.

여자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가치상실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 ㉠ 자기가 남자라는 가치를 상실해서 여자이길 원하고
여자라는 가치를 상실해서 남자이길 원한다는 거예요.

㉡ 인간이 본연의 창조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면 ※※

자기가 여자라는데 굉장히 보람과 가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가 남자라는데 굉장히 포부와 야망을 가져요.
이렇게 자기 존재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된다는
얘깁니다.

- ㉢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영인체가 근본적으로 부활되면서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2) 성경을 통한 영적경험의 세계 ⑤ 1 ^ 피와신앙의 이야기
|| 마 17 / 1 ~ 5 V ㉠

㉠ **영계의 영들은 어떻게 지낼까?**

육계의 세계랑 달라요.

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영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밥 뭐 먹을까? 오늘은 뭘 좀 해 볼까 "** 하여서
육적인 일에 급급해 산다는 거예요,
또 영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예 생각도 안하고 살거든요.

; 이처럼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영인체들도 육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많이 생각도 안하고 그 세계에 중심해서 살고 있습니다.

㉡ **자기가 육신 썼을 때 가졌던 생각과 사고와 정신을 가지고 영계에서도 산다.**

- ㉠ 육신 썼을 때 내 영에 사고를 온전히 회복하지 않으면
영계 가서도 그 이상적인 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 무식한 사람은 영도 무식해요.

예화) 이 세상 살면서 내성적이라 말도 잘 안 하는 사람은 말 안 걸으면 한 달 동안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영계 가면 300년이고 400년이고 말도 않고 가만있는 영인체들도 있고 어디 구석에 쳐박혀 세월이 가는지 모르게 그냥 사는 영인체등 별의별 영인체가 다 있다는 거예요,

- ㉡ ; 육계에서 회복하고 가지 않으면 영계에서도 계속 그렇게 산다.

㉢ **육계에서 아는 만큼 영계 세계에서도 안다.**

세상 살 때 알 던 사람은 영계가도 하는데
이 세상 살 때 몰랐던 사람은 영계가도 초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귀어야 되요.

- ㉠ 육신에 세계가 원인의 세계라면 영계 세계는 결과의 세계라 볼 수 있어요.
이 세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 가서 누릴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 ㉡ 육계 있을 때 자살해 죽으면 영계에서까지 계속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화)

A란 사람이 **"계"** 하다가 계돈 3억을 떼이고 그 화병으로 자살해죽었어요,
영계 가서 자기 계돈을 떼먹은 여자를 만난 거야, **"저년 잡아라, 저년 잡아라,"** 하면서 영원토록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싸운데요,

- ㉢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
"땅에서 떼이면 하늘에서도 떼이리라." 는 얘기에요.
; 무조건 죽어서 영계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할 일을 다 해야 되요.

(2) 성경을 통한 영적경험의 세계 ⑤ ~ 1 ^ 평화산상의 이야기 || 마 17 / 1 ~ 5 V ㉠

㉠ 이 세상 살 때 하던 일들을, 이 세상 살 때 누리던 삶을 영계 가서도 그대로 한다.

- ㉠ (a) 노래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영들은 영계가면 노래만 하고 악기 다루며 지내고
- (b)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영들은 그림 그리고,
- (c) 꽃 가꾸기 좋아하는 영들은 꽃 가꾸고 지낸다는 거예요.

;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소망하는 일들을 세상에 있을 때 맘껏 하세요.
결국은 그게 어찌면 영원한 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하던 짓대로 영계에서도 하더라.

㉡ 영계도 급수가 있어요.

영계가 천층만층 구만층인 것처럼 영계에는 각각에 자기의 급이 다 달라요.

개성 사명급 그 사람의 공력 그 사람의 살아온 노정

- ㉡ (a) 그 사람의 살아온 노정 에 따라서 급수가 다 다르다.

천 명 있으면 천 명의 급이 다 다르다.

- (b) 이 세상 살 때 얼마만큼 뛰고 누리고 회복시켜 놓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가 좌우되어 지기 때문에 육신 켜를 때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

㉢ 사람들이 말하길 “내가 죽으면 영계 가서 뭘 좀 해봐야겠다.” 하는데 육계에서 해야 될 일을 영계에서 잘 못 할 게 있어요.

- ㉢ (a) 재림 부활을 해야 되는데
재림부활하는 것도 협상 하에서 재림부활 하는 것이지
자기가 재림부활하고 싶다고 해서 재림부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맞아서 상대가 원해야지 된다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그냥 가서 막 따라 붙으면서 하는 게 아니예요.

- (b) 영계도 다 법칙이 있고 윤리가 있고 진리의 흐름이 있어요 .
이 세계에 있을 때 어느 정도 못하면
그 세계에서도 곤고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죠.

(2) 성경을 통한 영적경험의 세계 ⑤ ~ 1 ^ 비판판상의 이야기 || 마 17 / 1 ~ 5 V ㉞

㉞ 영인체에 성장은?

예화)

밖이 자랄 때 보면 밤송이 벌어진 다음에 밖이 텅겨져 나오잖아요.

밤송이를 벗어나서 밤알이 크는 거 봤어요?

밤송이에서 떨어져 나온 모양 그대로 예요. 그렇죠.

㉞

밤송이 안에 있을 때 알이 큰다는 겁니다.

; 이렇듯이 육신 켜를 때 커야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까실까실한 밤송이는 육신하고 같고

그리고 밤알은 영인체와 같다는 거예요.

㉞ 육신 안에 있을 때 영이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육신 벗어나서 성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㉞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육신으로 재림부활을 또 하는 거야.

자기 육신 가지고도 어려웠던 것이

남의 육신 가지고 재림 부활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육신 있을 때 영을 부지런히 성장시키고 만들어야 됩니다.

㉞ 영인체는 진리의 말씀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고 이루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㉞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불림 받아서

얼마만큼 사명을 감당하고 뜻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영인체가 빛을 발하고 사명하는 사명의 급이 달라져요.

㉞ 계급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고 영적인 모든 여건이 달라져요.

예화)

군대 가서 “**벼** 떼다.” 이러면 사지를 떼잖아요.

인등병, 이등병만 해도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벼들이 뜨면.

- 영계도 사명의 위치라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사명을 맞고 뛰고 달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 “**육계에 있을 때가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고 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뛰어야 되요.

(2) 성경을 통한 영적 경험의 세계 ⑤ ~ 1 < 피파산상의 이야기 > 17 / 1 ~ 5 < 바 >

㉢ 육계에서는 혈통을 따지는데, 영계에서는 그 혈통대로 안 따진다.
“우리 아버지야. 우리 할머니. 우리 삼촌이고 이모야. 내 동생이야!”

㉠ **저급한 영**(아직 복직이 되지 않은 영)들은
육신 썼을 때 삶을 그대로 연장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상영계급)
하나님 안 믿고 이런 차원들은.
하나님 믿으면
자기에 진정한 영적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영적 어머니가 성령인걸 알게 되요.

㉡ **예화)**

군에 있을 때는 ㄱ 사람이 상사였어유.
근데 제대해서 사회인이 됐는데도 ㄱ 사람이 상사라고 경례하고 다녀유?
내가 사장이고 그 사람이 부하인데도 경례할 수 있어유. 그렇지 않잖아유.

; 군대에서 따지는 계급주의 하고 사회에서 따지는 지위하고 다르듯이
육계에서 따지는 촌수와 혈통 관계랑 영계에서 따지는 관계성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세계 가면 모든 구조와 형체들이 달라진다.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3) 인간의 죽음과 영계의 길	
‘사람이 육신을 썼을 때 얼마만큼 인생을 가치 있고 뜻 있게 살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역사를 이루면서 살았느냐 ‘에 따라서 사후에 세계가 좌우되어진다고 그랬죠.	
1) 죽음의 세계	① 마27/50 :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다” (신50) ; 예수께서 돌아가신 장면이 나오고 있죠. 사람이 죽을 때는 ‘영혼이 떠난다.’ 고 표현을 했습니다. 육신에 기능이 끝났을 때, 수한이 다 되었을 때, 영인체는 육을 떠나게 되어있습니다. ㉠ 사람이 죽을 때 언제 영이 떠나냐 하면 꿀각하고 숨이 넘어가기 대략 30분전에 영은 이미 육신을 이탈해서 나오게 되어있어요. < 가사상태 > ㉡ 영이 떠나고도 왜 더 사냐면 <u>영의 기(에너지)</u> 때문에 조금 더 호흡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예화) 선풍기 돌다가 코드 빼면 전선 안에 있는 에너지 때문에 조금 더 돌죠. ; 이처럼 대부분 40분 정도 숨을 쉬다가 죽어요. 그 이전에 이미 영인체는 빠져나와 있어요. ㉢ 어느 한계 넘으면 영육간에 파장이 끊어지고, 인간은 완전히 죽게된다. 세 번에 걸쳐 숨이 끊어진다. < 배 - 가슴 - 목 > 첫 번째 배에서 한번 크게 쉬고, 가슴으로 한번 크게 쉬고 마지막에 목에서 한번 크게 내 쉰 다음에 꿀각하면서 죽는 거여. 육신의 죽음이 그래요.
	R 비유) 육신은 집 같고, 영은 사람(주인)과 같다, 따라서 사람이 나가서 돌아다니다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영혼이 나가서 돌아다니며 영계의 세계나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u>사람이 죽은 것은 집이 무너지는 것과 같아서</u> <u>영이 육체에 거할 수 없어 떠나게 되는 것이다.</u> 영인체가 항상 인간의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서 돌아다녀요. 영하고 육은 분리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영은 영에 일을 하고 육은 육에 일을 합니다. 영에 성장 정도에 따라서 다 좌우 되요. ㉠ 영이 어렸을 때는 쉼 안에서 거의 살아요. 성장할수록 활동반경이 넓어져요. 예화) 어린 아이가 간난 아이 때는 엄마 품안에서 크다가 애가 조금 큰 다음엔 방안에서 커요, 조금 큰 다음엔 집안에서 커요, 조금 큰 다음엔 동네에서 커요, 조금 더 크면 유학을 가고 그죠, 조금 더 크면 세계로 가고 더 크면 지구를 떠나죠, 이 정도로 활동반경이 점진적으로 더 넓어지고 더 멀어져요.

(3) 인간의 죽음과 영계의 길

㉠ 영이 성장하면

㉡ 영계 가서 공부도 하고 오고

㉢ 다른 세계에 가서 다 누리고 오고,

㉣ 뭐 알아보고 오고, 영이 활동하고 다 해요.

②

㉤ 육신이 영혼에 집이라고 보면 되요.

육신은 육에 일을 하면서 육을 중심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은 육을 근거로 해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이 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을 때도 육신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변하지만

영인체는 이탈하여 무형이라는 영계, 형이(상학의)세계에 가게 되어있어요.

③

사람은

죽기

전에

죽음의

징조가

나타난다.

육 계	영 계
㉠ 죽을 때보면, 대부분 2~3일 전부터 파장을 받는다는 얘기, 옛날 선덕여왕도 자기가 죽기 3일 전에 알았다 하잖아요, ; 신령한 사람들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낍니다, 2~3일 전부터 파장이 오게 되어 있어요, ㉡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안 하던 짓을 할 때에 “재가 죽을려나” 이런 얘기 많이하죠, 살아생전 안 하던 짓을 행하는 것은 죽음의 징조들을 보는 거예요, 예화) - 뭔가 자꾸 짐도 정리하고 사람들도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죽기 전에 한다는 얘기도요, - ‘갑자기 고향에 가고 싶다,’ 는 등,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자꾸해요, 죽을 사람들은 죽을 얘기들을 해요,	영계에선 어머니 죽기 전에 친척들이 인사차 한번씩 보러오죠, 영계에서도 죽기 3일 전부터 죽었던 할머니나, 남편이나 (자기 남편이 일찍 죽었으면) 이런 영들이 찾아와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같이 가자고 자꾸 방문해요,
이렇게 죽기 전에는 동일하게 영계에서도 징조가 있고 육계에서도 징조가 있어요,	

입신할 때도 영인체가 얼마만큼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④

입신

어떤 사람은 혼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체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쓰러져요,	어떤 사람은 영계 강의하면서도 입신하는 사람이 있어, 영은 영계 가서 얘기하고 육신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강의할 수도 있다는 거야, 영급이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그렇게 해요, 어느 정도 영이 성장되어 진리급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중계를 한다, (신령한 사람들)
--	--

(3) 인간의 죽음과 영계의 길

죽을 땐 초혼하는 영들이 온다.

㉠ 어떤 사람은

“영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육계에도 영향을 입힌다.” 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들이 과연 있을까? 있어요.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

신선처럼 인자하게 편하게 돌아가시는 사람,
; “선하게 살다가 좋은 데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
; “아유 평생 고생하더니 안 됐어,
어떻게 안 된데 간 거 같아,
못되게 살더니.”

; 그게 다 맞는 얘기란 거예요.

2)

㉠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겐 이방 영들이 온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초혼 / 이방인의 초혼)

㉠ 살아생전 망자가 착한 일들을 했으면 「선한 영」들이 오고,
악한 일들을 했으면 「악한 영」들이 온다.

;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영계로 데려가느냐’ ‘악한 영계로 데려가느냐’ 가 좌우된다.

㉠ 죽을 때보면, 영이 어느 세계로 가는지 알 수가 있다.

초
혼
의
세
계
㉠

(3) 인간의 죽음과 영계의 길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서로 끌고 갈려고 그래요.

유1/9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훼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신397)

㉠ 사람이 죽기 시작할 무렵

믿는 사람에게는 선한 주판권의 천사들과 악한 주판권인 마귀들이 와서 서로 자기네 편으로 끌고 갈려고 쟁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판권 (선한 영 = 천사)	사탄 주판권 (악한 영 = 사탄)
하나님 편에서는 선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주판권으로 데려갈려고 하고	사탄 편에서는 자기네 편으로 끌고 갈려고 영을 악평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 영계의 결정은?

- ㉢ 살아생전 그 사람의 인생관과 노정(=행실)이
자기의 영계(구원)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 ㉣ 영계는 조건 댓가로 가는 세계
㉤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이론 대로 가는 세계
㉥ 행실급에 따라 선악의 양단에 세계서 이끌어 갑니다.
육신 썼을 때
“어떤 마음보를 가졌냐기 어떤 행실을 가졌냐기” 에 따라서
악한 행실을 했으면 악한 쪽을 사모하고
선하게 양심적으로 살고, 의롭게 살았으면 의로운 세계를 사모합니다.
㉦ 민주주의 세계가 좋다해도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 사람은 결국 공산주의 세계로 넘어 간다.
; 자기 사상과 자기 뜻을 가지고 영계도 가게 되어 있다.

; 자기에 살아온 인생관,
그 사람의 행실과 노정이 자기 구원문제를 좌우하는 것이지
누가 데려가고, 누가 가지말라 해서 가는 세계가 아니다.

㉧ 자율선택과 타율선택

- ㉨ 일반적인 경우
영인체의 의사에 따라 영적 세계를 자유롭게 선택한다.
그 세계가 나쁜 세계라도
영인체 자신이 만족하는 세계면 인도하는 영을 따라 그 세계로 간다.
㉩ 영인체의 선택이 적합하지 않을 때는
인도 영과 의사 교환을 해 재 선택하거나
인도 영 또는 영인체 상호간에 생전의 삶을 비교 평가해서 최종결정을 한다.
㉪ 영인체가 가기 싫어도 강제로 이끌려 가는 수도 있다.

2) 초혼의 세계
㉡ 하나님 믿는 사람의 초혼

(3) 인간의 죽음과 영계의 길	
2) 하나님 초혼의 세계 ② ④ ⑤	㉔ 선한 세계가 50%이고, 악한 세계가 50%일 땐, 끌려가는 쪽으로 간대요. 그래서 사람이 막판에는 기도하는 게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선 쪽으로 조금만 더 기울어져도 선 쪽으로 끌고 가고, 악한 쪽으로만 조금만 더 기울어져도 악으로 끌고 간다는 거야.
	㉕ 초혼하는 악한 영들 중에서는 굉장히 몰상식한 영들도 있어요.
	㉖ 쇠몽둥이를 들고 오는 영들도 있고 쇠사를 같은 거 칭칭 감고 오는 영들도 있거든요.
	㉗ 악한 일을 한 사람들도 무섭게 생긴 영들이 오면 두려워서 안 따라 갈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영들을 쇠몽둥이로 두드려 패서 데려가요.
예화) 한번은 어떤 사람이 사형선고 받아서 죽게 되었을 때, 총회장님께서 영계에 서 보니까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쇠몽둥이를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안 갈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영들이 와 가지고 쇠몽둥이로 두들겨패고 막 사 슬로 때리고 그러는 거야, 그리니까 이 사람의 영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만신창이가 되는데 갑작 놀라서 육이 눈을 떠보니까는 육도 고통을 견디면서 발버둥치는데 어금니를 악물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이빨이 부러져서 튀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랐데요,	
※※ ; ‘아아! 영인체의 세계가 육신에게 이 정도로까지 영향이 크구나.’ 이러한 모습을 그때 보고 깨달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영인체에 상황들이 육신에 들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썼을 때 제대로 해야되요.	
㉘ 사람이 죽게 되면 초혼영이 와서 선·악간에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5분, 낳았을 때 5분이 중요하다. 죽을 때, 5분에 불신하면 헛일이다. 괴로우니까 그 때 기도도 해주고 하면 괜찮다.	

(3) 인간의 죽음과 영계의 길	
2) 하나님 초혼의 세계 ② 초혼 ㉠	▷ 교훈말씀 ㉠ 육신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침 이슬처럼 허무합니다. 동풍에 순간 시들어 버리는 풀처럼 꽃잎처럼 허무한 게 인생살이예요. 사람 죽는 거 보면 참으로 인생 허무한 거 많이 느끼거든요. 초상집에 가면 인생 허무를 아주 그냥 통감합니다. ㉡ <u>인간 인생살이가 덧없이 흘러가는데</u> <u>이 인생을 가치 있게 귀하게 살게 할려면</u> <u>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한히 연단시키고 갈고 닦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u> ㉢ 사람이 죽어서도 후회 없고 미련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세계는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은게 인생살이 예요. 「<u>세상 인생살이</u>」에다 목놓아 살다보면 인생이 참 덧없이 흘러가면서 허무하게 됩니다. ㉣ <u>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인생살이 살면</u> <u>인생 허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요.</u> <u>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살라고</u> <u>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u> ※※ ㉤ 육신 켜를 때 제대로 살아야 영계에서 정말 이상적인 구원과 천국을 이루어 살 수 있다는 애깁니다. ㉥ 이 세상 살 때 제대로 살게 할려면 하나님 진리 듣는 거 밖에 없어요. 하나님 진리가 우리 인생살이를 가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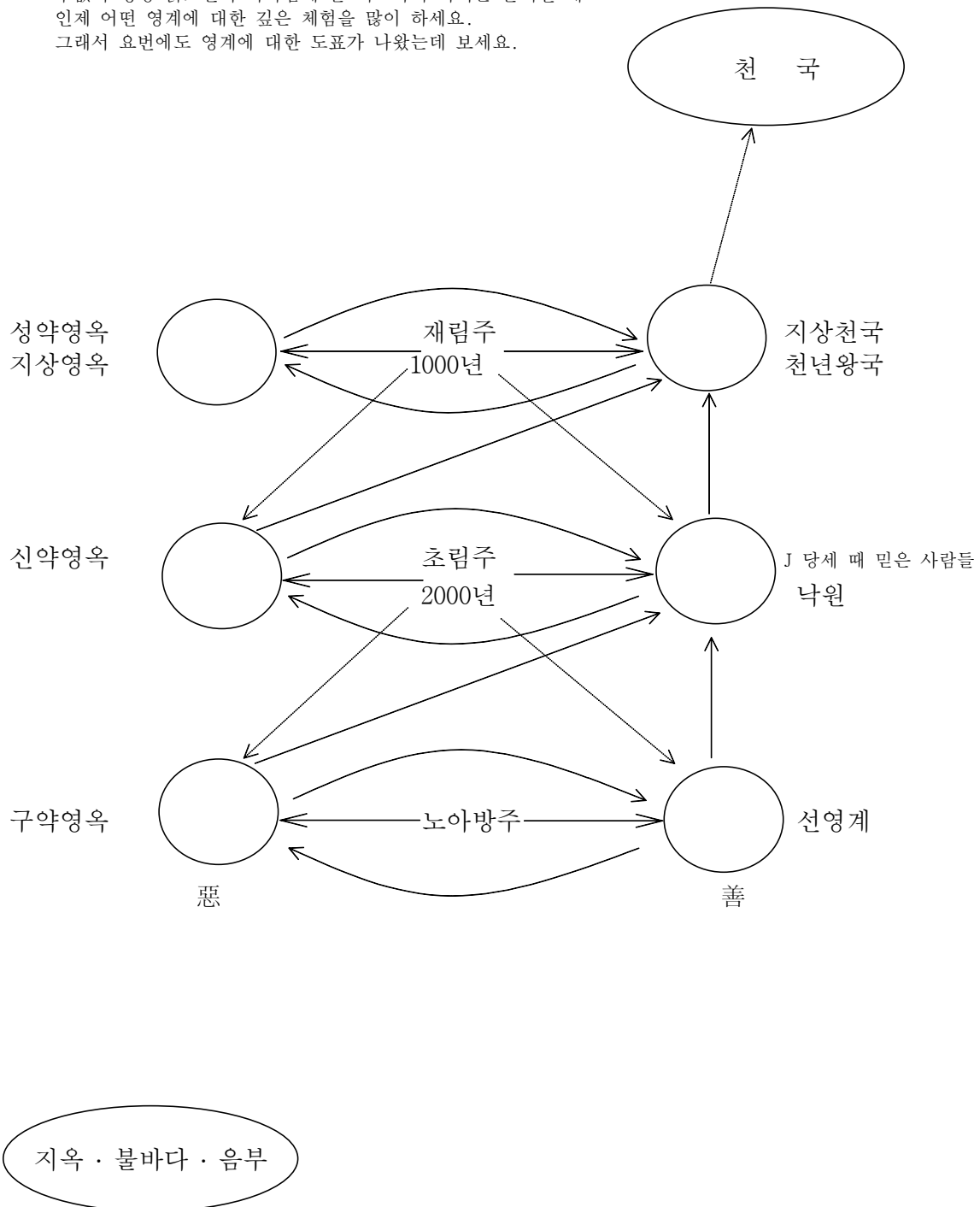
(4) 영계론에 대한 「새로운 도표」를 여러분에게 선 보입니다.

그 동안 영계론 전했지만 이것보다도 더 깊은 차원에 영계예요.

새롭게 근본적으로 이번에 밝혀진 영계데

【죄형법정주의의 하나님】

총회장님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신령하시지만
40일 70일씩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는 것이....
거의 밥 먹는 날보다 금식하는 날이 더 많으셨어요.
수없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사시는 분이신 데
인제 어떤 영계에 대한 깊은 체험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번에도 영계에 대한 도표가 나왔는데 보세요.



영계는 선과 악에 개념으로
「선한 세계와 악한 세계」 이 양단에 세계로 나뉘어 집니다.
살아생전에 삶이 영계의 모든 노정을 좌우합니다.

과연 우리가 가는 영계는 어느 급인가?
무턱대고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급에 구원을 이루면서
어느 급에 영계의 삶을 살아 왔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1) 구약영계
^ 선영계
↓ 구약영옥 V

벧전3/18 :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 :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20 :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신381)

①

노아 홍수심판 때,
여덟 명을 제외하고는 다 물로 심판받아 죽었는데,
그 때 죽은 영들이 지옥에 갔다고 배웠다.
그런데 벧전3장 8절로 20절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참조】 「영옥」이란 곳은 「노아 홍수심판 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간 곳」

① 의문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얘긴데

㉠ ‘지옥은 이미 심판하여 끝난 세계로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세계로 알고 있는데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또 다시 복음을 전한다.’ 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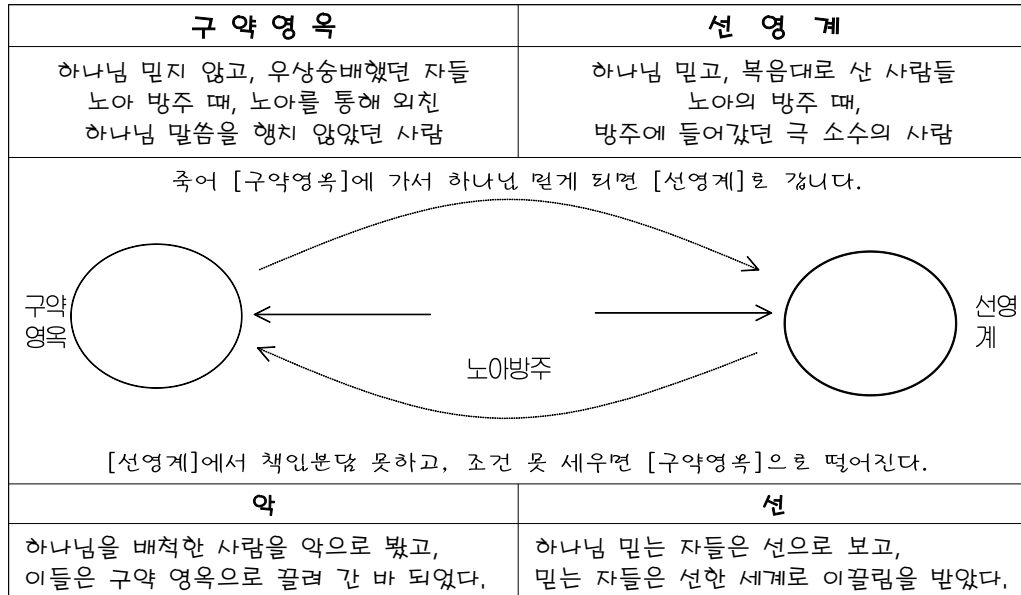
㉡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가도 또 다시 가서 복음 전하시겠네요?!”

㉢ 【 답 】 ;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에 방주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 받아서 멸망된 자들은
영옥엘 갔지 지옥을 간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때 간 곳이 **구약 영옥**이에요.
; 영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 ② 노아의 말을 듣고서 방주에 타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간다.” 고 했는데 노아 때 벌써 천국가면 되겠습니까!
 ; 어딜 갔냐면 『선영계』를 갔어요.

③ 도표설명



㉠ 영계 초혼

안 믿는 자	믿는 자
하나님 안 믿고 불신하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 살면서 독선적으로 인생 산 사람들은 악한 영계에서 끌고 가요,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른 자들이 사후에 영계 갈 때는 초혼한 영들 이 선영계에서 초혼하러 영들이 와요,

사람이 죽어서 초혼을 할 때,
“어떻게 살았느냐” 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좌우됩니다.

- ㉡ 구약 영계에서도 구원층이 천층만층 구만층이에요.

예하) 선영계 간 사람이 약약에 10000명이나 한다면
 10000명의 구원급아 다 달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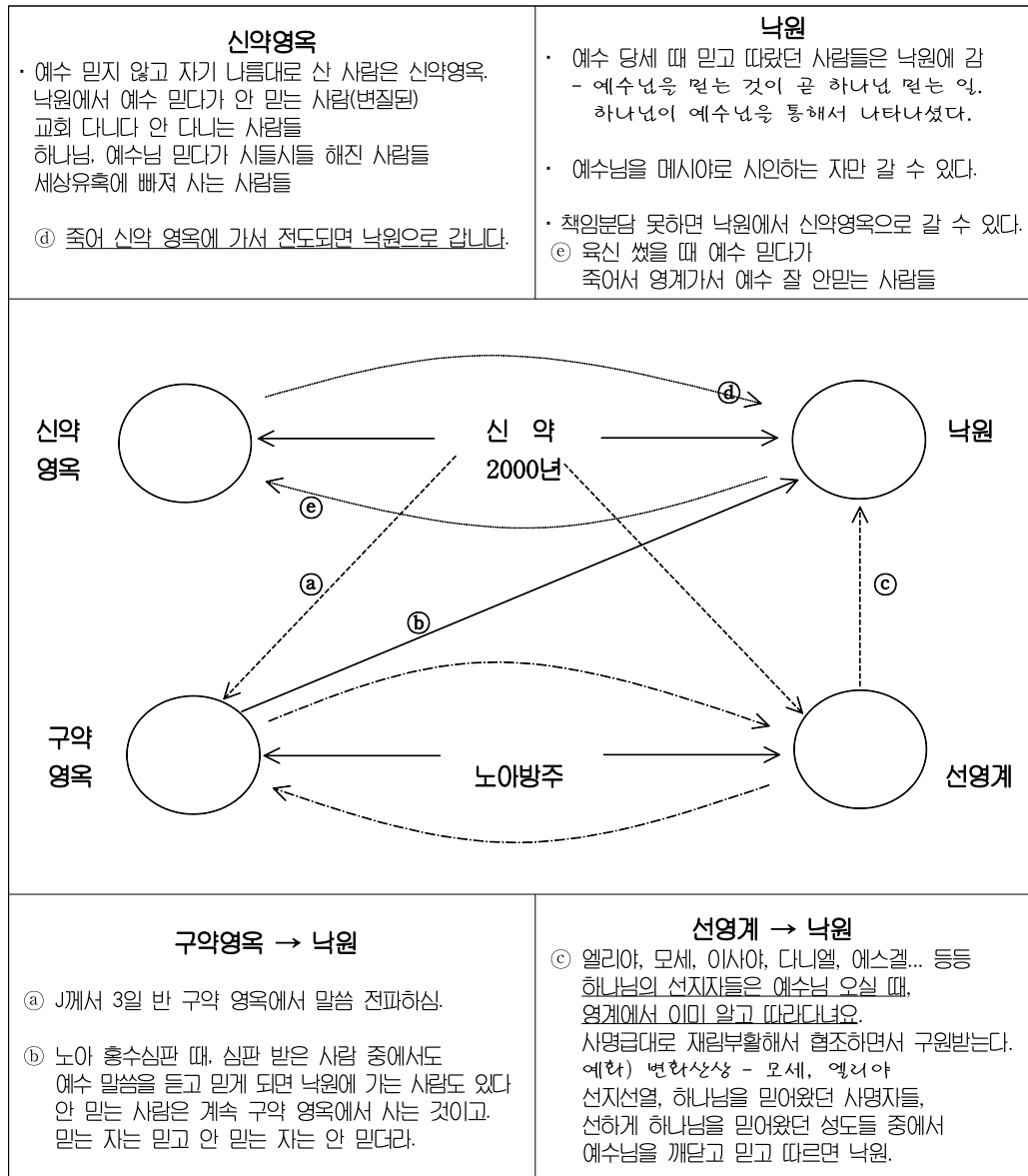
;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빛이 다른 것처럼.
 이렇듯이 구원급은 다 달라요.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가 사명한 대로, 자기가 말씀 지킨대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계처럼 공의로운 세계가 없다.

1)
 구약영계
 ^ 선영계
 ↓
 구약영옥
 V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따랐습니까? 아니잖아요. 불신했죠. 유대인들의 불신과 배척으로 인해서 3년 정도 밖에 복음을 못 피셨잖아요. 그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영적으로 구원을 선포하시고 영적인 부활 승천을 하셨잖아요.

① 도표설명

< 죄형법정주의의 하나님 >



2) 신약영계 ① 낙원 ⇕ 신약영옥 V 도표설명

- ㉔ 육신 썼을 때, 하던 짓대로 대부분 영계 가서 하더라,
 - ㉔ 육신 썼을 때, 안 믿던 사람이 영계에서 믿기도 어렵지만 또 믿기도 한다는 얘기,
 - ㉔ 영계의 법칙을 보니까 무한한 가능성과 여지가 많이 있더라,
 - ㉔ 구원된 사람들의 숫자가 1/10도 안 된대요,
- 굉장히 적은 숫자만 구원받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 책임분담 몇 조건을 세우면,
- 구약영옥에서 선영계로, 구약영옥에서 낙원으로, 선영계에서 낙원으로 갈 수 있다.

2) 신약영계 ② 왜 영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 V

② 왜 영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구약 영옥에서의 말씀 전파> ※※

벤전3/18 :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 :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
; 예수님께서 구약의 영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얘기에요.
20 :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 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신381)

; 하나님께서 홍수심판 할 때 순종치 않아서 심판 받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 "심판하셨는데 왜 또 구원하시냐? 혼돈된다."

벤전4/6 :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신381)

;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구약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역사는 육법만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법이 있어요?

예화) 시체가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데,
경찰이 와 가지고 딱지를 3장이나 끊었어,
죽은 사람한테 법이 적용됩니까? 안 되잖아요.

㉢ 죽은 사람한테는 교통법이 저촉이 안 되듯이
구약에 모든 사람은 영옥에 간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영적심판이 없었습니다.
영법은 선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영적 심판이 없었어요.
육만 심판하고 끝난 거예요.

※※㉣ 예수님은 영적구원과 영적 심판을 좌우하는 사명자잖아요.
그 당시에 영법을 받지 않았던 영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할려고.
믿습니까?

2) 신약영계 ③ △ 교육 말씀 V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너무나 인정사정도 없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도 공갈 협박적인 복음을 많이 전한다는 거예요. “너 이 복음 안 들으면 지옥가” 이러면서 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① <u>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에 하나님이세요.</u> <u>섭리역사를 보면 순리적으로 역사 하시고 많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u> ㉠ 하나님이 오죽하면 지옥문 앞까지 쫓아가면서 “너 나에게 할 말 없느냐.” 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겠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은 깨달을 수 있겠더라고요. ㉡ 영계론 도표만 봐도. 예화) 부모들을 보면, 부모는 자식에게 종처럼 헌신해요, 저는 살면 살수록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존재일까? 뭘 바라고 저렇게까지 헌신할까?’ 보면 평생 살아온 노정을 보면 자식에게 받는 것도 없어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가요, 그게 당신의 인생인양, 자식들 치다꺼리 다 하면서 살아 가시더라고요.. 똥귀저기부터 시작해서... 결혼하면 반찬까지 다 해다 주면서 거의 부모라는 것이 하나에 죄집이라도 진양 그렇게 하는데 ; “인간의 부모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 사랑하신다.” 고 우리는 주장하면서도 “하나님 안 믿으면 무조건 심판 받고 지옥가고 불로 꼬실러 죽고...” 이렇게 우린 주장하고 있으니까 양단 모순이 있다는 얘기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순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본 존재자인 걸 깨달아 보란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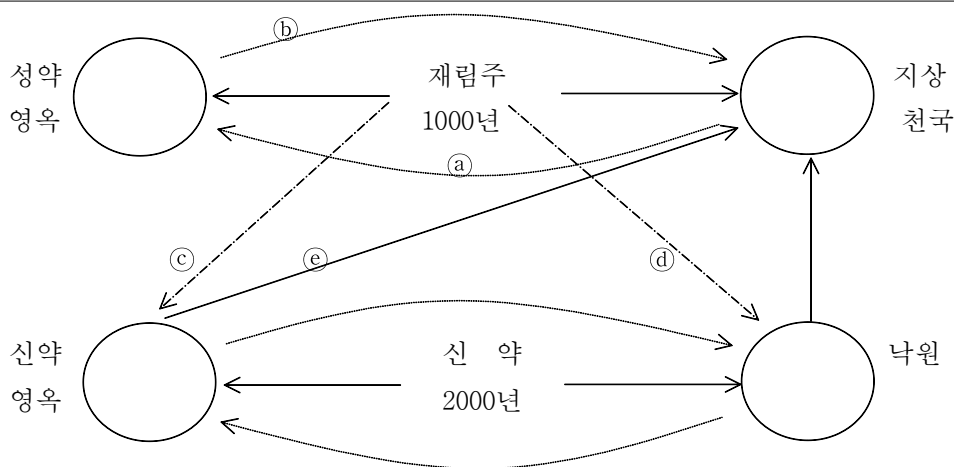
3) 성 약 영 계 ^ ① 육 신 췌 을 때 ② V	성약 영계 : (지상천국 역사, 천년왕국 역사) - 재림주에 의해서 좌우. 육신 췌을 때, 재림주님을 믿고 <u>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갈고 닦아 만들어진 영인체를 가지고,</u> <u>죽어서 지상천국에서 천년동안 주와 더불어 복을 전파하면서</u> <u>하나님의 상대체가 될 정도가 되까지 천국문이 열리게 되어있습니다.</u> 그냥 “재림주만 믿는다.”고 해서 천국으로 금방 올라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인격이 예수님과 같아졌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살 수 있는 인격체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섬길 수 있는 매너와 자격과 삶이 됐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 무조건 천국 가서 산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깁니다. <u>내가 안 갖춰지고 안 만들어지면 그 세계에 가서 살고 싶어도 살수가 없어요.</u> ㉡ 예하) 문명시대 앞에 부시맨처럼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죽어서 천년동안 또 기다려야 됩니까? 천국 가기 너무 힘드네요?” 그러는데,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지겹습니까?
--	--

3) 성약영계 ^ ① 육신 췌을 때 ⑥ V	① 지상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재미있고 즐겁고 기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루 하루가 보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변화될 때 기쁨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거든요. ② 여러분이 (섭리사에서)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면 만들수록, <u>연륜이 깊어 가면 갈수록, 인생살이가 더 재미있고 보람이 있다는 것을 느낄거예요.</u> 왜냐면 갈수록 인생살이가 무르익고 자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가치도 기쁨도 더 크고 사랑도 더 크다는 거예요. ③ 천년왕국의 영계에 갈 정도면 기쁨도 사랑도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천국에 가면 나름대로 기쁨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삶들에 대해서 ‘길다 짧다’ 할 것이 없어요. 대학 4년이 긴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가듯이 천 년도 마찬가지예요. 만들다 보면 천 년 갖고도 모자라요. 만약에 영계가면 “하나님! 천 백년이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도 할거라는 거예요. 안 만들어지면. 그렇게 하기 전에 바빠 살아야 되요. ④ 우리가 육신 췌을 때 최선을 다하고 영계에서 최선을 다 할 때 천국에 가서 살아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화) 우리가 대학교 들어가서 보람이 있을려면 1학년 때 최선을 다 하고 2학년 때 최선을 다하고 3학년 때 최선을 다 해야지 보람이 있잖아요, 결실이 아주 만족하게 느껴지잖아요. 이렇듯이 <u>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삶의 노정 노정에서 최선을 다 해야 되요.</u> <u>자기를 연단시키면서 만들면서 천년 왕국을 살 때, 천국에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u>
--	--

성약영옥		지상천국
재림주 부인한 자	← 재림주가 메시아임을 믿는 자 →	미신하는 자
재림주 안 믿는 자		시인하는 자

- ① 재림주님 밋다 타락한 자들
재림주님 밋다 신앙이 시들시들해진 자
재림주님 밋다 세상의 유희에 빠져 사는 자
육신 썼을 때 주님 밋다 죽어 지상천국에 가서 신앙이 시들시들해 지면 성약영옥
- ② 성약영옥에서 전도 되어지면 지상천국

예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비 진리라서 안 믿었습니까?
천상 천하에 그런 진리가 없었어도 믿는 사람은 소수란 얘기에요.



③ **예수님께서**
육적인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고
구약 영육에 가셔서 3일 반 동안 복음을 전했듯이
재림주님께서도
심정에 십자가를 지고,
신약영육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있다.

옛날엔 종교가 다르면 죽이기도 했지만
오늘날에는 종교가 다르다고 죽이지를 못하잖아.
단지 한낱을 주고, 십정의 고통을 받고,
각종 각색으로 매도 할 뿐이다.

- ㉔ 재림주가 신약영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믿으면 지상천국으로 구원받아 가게 된다.

예수님 믿다 타락한 자들과 불신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으면 지상천국으로 구원받아가게 되고
 불신하면 성약영옥으로 가게 된다.

예수 믿다가 타락한 자들, 예수 불신한 자

㉔ 낙원의 세계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나타나면
영계에서 먼저 알고
따라다니면서 협조하고 다녀요.

이런 사람들은 재림주 나타나면
메시아를 믿고 시인하면서
구원받아요.

사명급대로 재림부활해서
협조하면서 구원을 받는다.

책임분담 못하고 조건 못 세우면 떨어진다. 그래서 영계에 대해서 깨닫고 가야 된다.

3) 성약영계
 ③ 천년왕국엔 누가 가나? V

- ㉠ 여기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지상천국이란 세계로 부활되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천년 왕국에는 재림주가 메시아란 것을 시인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 ㉡ 이치
 하나님이 역사 하시는 섭리에 이치와 원리를 모르면 구원을 못 받아요.
성경을 자꾸 읽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역사가 어떻게 흘러왔으며,
하나님이 역사 하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신약역사 때 (예수님)	성약역사 때 (재림주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	재림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재림주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
예수님 때, 예수님 안 믿고 " 나 하나님 믿어 "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부족해서 당세 하나님 믿고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것 아니잖아요, ;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 재림주님 때 "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되잖아, " 이게 안 통한다는 얘기, · 재림주님 오셨을 때, " 재림주 안 믿고, 난 예수님 믿어요, " 통하질 안아요, · 예수님 믿어도 " 니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재림주를 믿어야지, " 그런다는 거야, 재림주가 오시면, · 재림주는 예수님이 보냈고,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 니가 예수님을 사랑했어? 그럼 재림주님을 믿어야지, 니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재림주님을 믿어야지, " 그 얘기예요, ; 진짜 사랑했으면 왜 보낸자를 몰라보냐, 오직 보낸 자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 · 성약역사 때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오직 재림주님을 통해서만 나타나요, 역사는 중심인물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① 성경속에서 얘기하는 지옥과 불바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근본 불신을 해서 가는 세계는 이 지옥과 불바다. 마13/41 :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42 :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신23) ㉠ ; 그 나라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둬내서 풀무불에 던져넣는다고 그랬어요. ㉡ 더 이상 구원받을 여지가 없는 사람들 더 이상 회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 메시아의 길을 막고 하늘역사를 그릇친 사람들(채림주 배신, 불신) 예)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기까지 하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었지만 그럼에도 역사를 깨뜨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세계로 갔다는 거예요. ㉢ 『풀무불』은 쇠 중에서 제일 강한 금을 녹여서 정금으로 만드는 불이란 거예요 ; 그렇게 고통과 아픔이 큰 곳이 지옥·불바다란 거예요. 막9/47 :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 48 :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 :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 ; <u>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않는 극적인 불바다의 세계란 애깁니다.</u> 이렇게 지옥이란 세계는 세상살이로 볼 때 제일 고통스러운게 불로 꼬실러죽이는거잖아요. 그래서 불로 비유했어요. ㉤ 히틀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였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 값 때문에 탕감 받으라고 히틀러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였는데 어디로 갔겠습니까? ; 하나님이 지옥에 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여도 악한 사람은 악한 날에 악하게 쓰인대요. 그러면서 지옥에 보낸 데. 하나님은 그 일을 시킬 뿐이라는 거죠. <u>히틀러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대요.</u> <u>생명을 경시 여기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u> 그랬어요.

4) 지옥과 불바다 ② 지옥이란?	② 지옥은 어떤 거랑 똑같냐면 ※※ 예화) ㉠ 밥 먹고 나면 오장육보에서 영양가 다 흡수하고 빨아드려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필요 없는 배설물은 항문을 통해서 화장실로 버리지잖아요, ; 마치 화장실 같은데가 불바다래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배설물은 쓸게 하나도 없잖아요, ㉡ 나이롱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회복할 수가 없는 것처럼 지옥세계를 경험한 자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의 세계다, ㉠ 재림주 부인·불신·배신한 영이 가는 세계다. ㉡ 하나님의 사명자 대적하면 간다. ㉢ 하나님의 참 역사가 이단의 역사이듯이 모르고 죄 짓는 것도 큰 죄다. ㉣ <u>지옥엔 더 이상 손댔게 없는 사람들, 완전히 끝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u> <u>하나님도 안대고, 예수님도 주님도 손 안대고, 천사도 손 안대는</u> <u>최종으로 가서 끝나는 사람들이 가는 세계가 지옥이란 거예요.</u> 인간말종 · 인간쓰레기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 영원히 죽지도 않고, 끝없이 영원한 고통을 느끼는 세계. 정말 고통스러워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세계다. ;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세계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제 이치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지옥이란 세계가 그렇게 무서운 세계예요. ㉥ 복음전파가 필요 없는 세계. ③ 예수님 안 믿는다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예요. 예화) 이 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등... 아무도 예수님 몰랐잖습니까? 다 지옥갔냐? 절대 안 갔어요, 어디 갔냐면 구약 영옥에 가서 복음을 들었으면 선영계 갔을 것이고 더 들었으면 낙원도 갔을 거예요, ; 그런 것이지 그냥 영원히 그 세계에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 이 세계이서도 하나님에 사명자가 나타날 때 시대시대마다 크게 한번씩 복음이 전파되고 역사가 전환되고 기회가 열리고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 이제는 선영계 세계나 낙원 세계나 몇 천 년 만에 한번씩 사명자가 나타나지만 꾸준히 그 중간에서는 사명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복음을 전해왔잖아요. 이렇게 영계의 구조는 존재합니다. ㉥ <u>영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배워도</u> <u>죽어서 또 배울게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u> ※※

[천 국]

하나님이 계신 나라.

계21/9~27 ; 빛 · 진리 · 사랑 · 공의 세계, 성문이 개방된 곳

;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데, 정육면체의 구조로 아름답고 진귀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영계체험한 거예요.
그런 걸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천국은 이 세상 것으로 비유할 것이 없어서 각종의 보석을 들어서 비유한다.

5) 천상영계^천국 V

① **빛 · 사랑 · 眞理 · 善 · 公義의 세계.**

① 부정 · 부패 · 비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아름다움의 세계다.
그 나라는 사람이 안뎡여지면 갈 수 없다.

㉠ 재림주님을 믿고, 복음을 행하여 영격을 완성한 인간들이 가는 세계
(완성급 세계)

㉡ 천국은 **비유) ① 가을에 청명한 날씨처럼**
② 돈 갓으면 더 갓고 싶어하듯이 이상적인 세계이다.

㉢ 더러움이 없는 세계다.

㉣ 밝고 빛나는 세계다. 천국엔 밤이 어둠이 없다.

천국에 등이 있을까? ; 필요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밝아서 온 천지를 밝히고, 가을날처럼 청명하다
그래서 해와 달의 비춤이 필요없다 했어요. 그림자도 없는 세계다.

㉤ 무기가 없는 세계다.

② **천국의 문은 재림주 믿고 따라가야 열린다.** (계21/10, 마22)

지상천국이 이루어져야만 천상천국도 온전히 이루어진다. (마18/18)
지상천국은 하늘나라의 천국을 가기 위해 준비가 되는 세계.

㉠ 재림주님 믿고 그 복음을 행하여서 靈格을 완성한 인간들이 가는 세계.
(완성급세계)

㉡ 지상에서 천년 뛰어야 갈 수 있다.
그러나 천년을 뛰어도 인간 못 만든다.

비유) ㉠ 60년 산 부모들 인격 못 만들잖아.
㉡ 시집간다고 제 버릇이 없어지더냐,

; 하나님이 버릇고칠 기회를 준 것. 감사하며 가야한다.
빨리 만들면 그 만큼 이상세계 간다.
육신 쓰고 도 닦으면, 육신 천국 누리고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누리고 사는 것이다.

㉢ 육신 썼을 때 재림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갈고 닦고 만들어진 영인체를 가지고
또 죽어서 지상천국의 세계에서 천년동안 주와 더불어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상대체가 될 정도로 영격을 완성한 사람들이 가는 세계
(완성급의 세계)

㉣ 사명기간이 천년이다.

비유) 60년 살면서 “어! 왜 이리 길어요,” 안 하듯이
“100년, 사명기간 왜 길어요” 하지 않는다.

영계는 영계 들어가서 보고 배워야 된다.

③ **확장실 없고,** (진리 먹고살기에)

④ **고통 · 아픔 · 기아가 없다.** 필요하고 귀한 것만 있다.

㉠ “아픔이 없으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슬픔이 없는데 기쁨이 있겠어요?! 슬프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는 것은
타락한 세계에서 느끼는 느낌들이다.

㉡ 사람이 기쁨 위에 또 기쁨이 있고, 기쁨 위에 또 기쁨이 있어요.
보람 위에 또 보람이 있고, 가치 위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천국에 세계는 깊고도 심오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멋진 세계다.

⑤ **하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존재하실까 ?**

; 팽이 끝 때문에 돌아가듯이 근원자다.
주님께서 처음 진리를 깨닫고 오셨기에 말씀의 근원자 이듯이

5) 천상영계 8 생형체급 V

⑥ **하나님의 전은 어떻게 생겼나 ?**

; 장방형(= 정육면체)으로 되어있다. 하나님의 전은 따로 있다.
하나님 성전에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수종 드는 천사들하고 산다.

㉠ 門 - 동서남북 3개씩 있고, 문지기 있고,
진리란 무기를 갖고 지키고 있다.

㉡ 집 - ㉠ 자기의 의·공적대로 집을 짓고 산다.
어떤 사람은 금강석으로 짓고 살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살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살고, 어떤 사람은 동으로 짓고 살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고 삽니다.

㉢ 신앙의 정도,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여러분의 공력이 좌우 된다는 거예요.

㉣ 의와 사명급에 따라 천국에서도 집도 다르다.
각각의 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서 안 산다.

㉤ 사명과 직책이 있다.

⑦ **하나님·성령·천사들이 있고 구경 가는 자 많이 있다**

㉠ **하나님** - 동서양인의 중간.

㉡ **성령님** - ㉠ 지구촌에 “성령” 보다 아름다운 자가 없다.
하나님이 바람 피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다.
하나님이 반하고 살 수 밖에 없다.
㉢ 온 인류 품을 수 있는 인격·덕의 모체다.

㉣ **천군·천사** - 천국에서 태어나서 사는 영.

㉤ 육계도 공무원·군인이 있듯이, 영계도 자기의 누리는 삶이 있다

사무를 보는 자 노래부르는 자 성가대 가르치는 자...	각각의 삶의 형태가 다르다.
--------------------------------------	-----------------

㉢ 천사도 같이 어울리며 놀고,

㉣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인체가 어떤 집을 짓고 살 것 같아요?
기도해서 받기도 하고, 꿈을 꿀 때 자기 집을 보여주잖아요.

보면,

어떤 때는 초현대식으로 멋있게 집을 짓고 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상하게 옛날 살 던 집으로 돌아갈 때도 있어요.

㉤ 이것은 애급 근성이 나타나거나 내 신앙사고가 잘못 들어갔을 때는
옛날 허름한 집으로 다시 거들어 가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 따라 집이 바뀐다.

㉥ 내 영이 천년동안 성장되어서 완성된 경지에선 요동이 없지만
과정 중에는 자주 요동함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자기 영의 상황이 자주자주 바뀌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영인체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자기 영 관리 잘해야 된다.

- ⑧ 意思表現 : 영들은 의사표현 잘 한다.
우린 눈치를 보나, 천사는 “저요! 저요!” 그런다.
지구촌도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의사표현을 잘하며 살게 만들어 났으나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 본연의 삶을 잃어버려서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다.
- ⑨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
- ㉠ ‘누군가를 보고 싶다’ 고 생각하면, 보고 싶어하는 사람 앞에 가 있다.
내 눈 앞에 사람이 있어도 심정이 안 맞으면
천리 만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심정일체의 세계다.
- ㉡ 자가용 안타고 다닌다.
- ⑩ 생 활 :
- ㉠ 하나님의 법 속에서 마음대로 누리고 즐기며 생활한다.
노래만 하는 천사, 사무만 보는 천사, 수족 드는 천사 있고,
- ㉡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일하며 불평불만이 없이 산다.
항상 노래 소리가 넘치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과실이 풍부하며,
기쁨이 넘치는 세계다, 물과 산이 존재한다,
- ☞ 영은 노래를 좋아하고, 명랑하며,
자연스럽게 과실들을 따먹으며 생활하고 있다.
- ㉢ 영계의 영들도 신발을 신고 다닌다.
- ⑪ 화 께 - 의가 화패다.
의를 많이 쌓으면 활동도 자유롭다.
말(=진리)로 식별하는 세계다. 자격이 되나 안되나 걸른다.
- ⑫ 예술
미술 하는 사람도 영계에서 색을 받아오면 그렇게 아름다워 하고
음악 하는 사람이 영계 들어가서 음울을 따오면 그렇게 감미롭고 신비하다.
음악이 끊이지 않는 세계.

⑬ 옷

천국에 가잖아요.

㉠ 바지도 입고, 미니스커트도 입을까? 그런 옷은 전혀 없어요.

㉡ 모든 영들이 다 긴 두루마기처럼 생긴 롱 스커트를 드레스처럼 입고 다닌다.
(발끝에 닿을 정도의 옷)

㉢ 영계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각종 보석의 세계로 비유했어요.

계21/1~21

길이 정금이라요.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바닥은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다 비칠 정도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속이 다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입으면 안 된대요.

㉣ 옷감은 구김이 가지 않는 실크 옷이에요.

㉤ 옷 끝을 손으로 들어 올리면
마치 물에 손을 댄 것처럼 물이 데구르르 굴러가듯이
옷감이 데구르르 말리는 느낌이든대요. 그 정도로 감촉이 좋다.

㉥ 육계에선 실크 입으면 좋다하나
천국 가면 삼베자락 같이 느껴질 정도로 천상영계의 옷감은 곱고 신비하다.

㉦ 옷 색깔

㉧ 사명·직책·공적·의에 따라
옷의 아름다움이 달라지고 빛깔이 달라지고 밝기가 좌우되어 집니다.

예화) 선생님은 검정색을 싫어했다,
수도생활 시 시켜던 사탄을 많이 봐서 싫어한다.

회색 : 사탄이 하얀색 겹 옷을 입고 온다.
희끗희끗하게 보이는데 광명을 가장한 사탄.
푸른 천은 천군이 많이 입는다. 노란, 초록....

㉨ 그 사람의 행실을 알고 싶으면 옷을 보면 알아요.
옷이 영인체의 행실이에요.
여러분에 행실이 안 좋으면 얼룩진 옷을 입고 헤어진 옷을 입고 그런다.

㉔ 예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씀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활동했어요, 말씀 안 들었는데, 단상에서 **“술먹지 말라,”** 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술 먹고 사고 가 나서 죽었어요, 그 때 주일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술 먹고 가다가 죽는 사람이 생길거라구”**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술 마시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영계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영인체를 초혼했는데 옷은 깨끗한 옷인데, 재더미에 뒹굴어 가지고 만신창이가 됐더라고요, 피도 묻고, 자기가 행실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영인체가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기가 안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말 안들어서 죽었다,”** 고 영인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술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 때 들었는데도 너무 속상해서 술을 먹었다, 근데 이렇게 사고나서 죽을 줄 몰랐다, 너무 억울하다, 너무 원통하다, 나 좀 살려달라,”** 고 영이 뒹굴면서 그러더라고요,

; 인간은 너무나 보이는 세계에 중심해서 삶을 살아간다.

영계를 자주 보는 사람은 함부로 못 살 건데.

영계도 자기의 주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사탄이 갖고 쓸 수가 있어 제대로 못 봐요.

5) 천상영계^천국 V

㉕ 예수님의 세마포 옷은 무슨 색깔까?

약간 미색 빛이 나는 흰색이다. 대부분 옷의 색깔은 흰색이 많다.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근데 빨간색 옷은 거의 드물테요.

㉖ 천국에는 검은 색 옷이 전혀 없대요.

음부나 무저갱이나 사탄의 세계에서 대부분 검정색 옷을 입는다.

흑암들이 짙은 회색, 짙은 밤색 옷을 많이 입고 다닌다.

요즘은 검정색이 최첨단의 색이라고 워낙 많이 입는데 자주는 입고 다니지 마시고...

㉗ 여러분이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면 색깔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가 좌우 되요.

㉘ 어둡고 죽은 색 옷을 입으면 그런 영들이 동질동요소를 느껴요.

그래서 같이 도와주고 같이 따라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뭔가 맞으니까.

㉙ 흑암은 어둠을 자꾸 만들어 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곳을 찾아가요.

죄지는 사람이 빛 가운데 못 오잖아요. 이렇듯이 어두운 곳을 좋아해요.

죄지을수록 자꾸 어두운데 들어 갈려고, 음침한 데 들어 갈려고 하는 거예요.

㉚ 옷 색깔은 밝게 입는 게 좋다.

자기가 들어내고 싶고 자랑스러우면 자꾸 밝은 데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옷 색깔도 밝게 입으라고 그랬어요.

㉛ 날개 ; 천사들이 옷을 입고 날라다니면 날개처럼 보인다.

5) 천상영계 八 천국 V

⑭ **머리카락** : 숏 커트 없고, 긴머리이며, 생머리가 많다.

⑮ **잠** : ㉠ 욕은 잠을 자야 하나, 영은 잠을 안잔다.

- ㉡ 영은 욕을 통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7~10시간씩 퍼져 자면 영이 답답해한다.
지나치면 천사도 정신 차리라고 때리면서 깨운다.
☞ 영이 욕하고 성격이 다르면 곤고해 한다.

㉢ 영이 신랑이면 욕은 신부 입장이다.
수수일체 작용하고 보완하며 서로 맞춰살아야 된다.

⑮-1 **새 · 동물 · 나무** 존재한다.

- ㉠ 나무
㉡ 나무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있고
㉢ 지구에서 죽은 나무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원래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만 하나님이 영혼을 부어서, 이 세계에서 죽으면 오게 했다.
㉣ 새들이 날아다니고, 고기들도 있는 세계다.

선생님 갔다온 이야기 : 예수님 초청으로 선생님 천국에 감,
문지기 曰 : **"왜 왔느냐?"** "증" 보여주니까,
"예수님 같은 이가 너를 불렀느냐?" 면서 의아해 하더라,

☞ 천국에 구경갔을 때,
부시맨처럼 그들 앞에서 들어 나서 부끄럽고 창피했다,
천국가면, 누구나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되어야 갈 수 있는 세계구나, 하고 깨달았다,

; 하나님처럼 만들어져야 갈 수 있다. 시골 촌 답이 어찌 천국에 사냐.

⑮-2 **계 절**

봄·여름·가을·겨울 구분이 없고, 항상 맑은 가을날과 같이 깨끗한 날씨래요.

⑮-㉓ 영계의 원리와 이치

영들은 자신의 육신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 짓고 그러면 영이 막 까무라친데요,
너무 너무나 고통스러워한데요, 육신 타기 싫다는 거야,

예화) 여러분도 찢어진 옷, 더러운 옷 입고 싫어요?
피 묻은 옷 입고 싫어요? 입기 싫죠,

- ㉑ 여러분이 범죄하고, 말썽 어기고,
안 좋은 마음·악한 마음·미워하는 마음 갖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옷 입는 것처럼 영이 싫어한 데요.
영이 그 육신을 피하고 싶데요.
- ㉒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사니까
곤고함이 생기고 갈등과 번뇌가 생기고
자기 안에서 싸움이 자꾸 깊어지고 이러는 거야.
- ㉓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도 지혜롭고 똑똑하게分別력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데로 살고, 상황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 육신이 靈에 발판이에요.

㉔ 예화)

※※

“교통사고로 내 왼발이 찢렸다면,
내 영도 왼발이 찢렸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예요,
영의 왼발은 찢리지 않았어도 영은 육을 통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육신의 왼 발을 사용 못하는 왼발 병신이라면
영도 왼발을 활동 못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육신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몸을 건강하게,

- ㉕ 자기가 지구촌에서 살 때 쌓은 의의 조건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 가는 거예요.
세상 살았을 때 세운 조건을 토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 부지런히 자기를 만들고, 갈고 닦아서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인생의 자격을 갖추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⑮-㉔ 영계의 원리와 이치

- ㉖ 어두운데 지나다 보면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영들하고 부닥쳐서 그러는 경우가 있다.
조금 지나면 안 아프다.
- ㉗ 영들도 사람하고 부닥치면 깜짝 놀랜데요.
육신의 머리가 아프듯이 영도 아프다는 거야.
; 영계와 육계는 그렇게 통합니다.

5) 천상영계 ^ 천국 V	⑮-㉔ 영계의 원리와 이치 어떤 일을 하다보면 어떤 일이 이뤄지기까지 갈등도 있고 번뇌도 있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많이 시달리고 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탄도 그만큼 힘들어해요. 힘들어 해요. 막상막하란 거야. 인간은 5수, 사탄은 6수, 하나님은 7수야. ㉔ 내가 하나님 힘을 빌어도 사탄하고 싸울 때는 조금 더 해서 올라와야지 이겨요. 여러분이 하다가 포기하면 지게 되어있어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늘 수는 이기게 되어 있다. ㉕ 사탄하고 가다보면 “내가 힘든데 저 사탄은 왕성하구나.” 고 생각할게 아니라는 거야. 나 힘든 만큼 사탄도 힘들어한다는 거야. ; 내 상대도 힘들어한다는 것만 알면 되요. 끝까지 버티면 무너지게 되어있다는 거야. 모든 게 다 상대성이예요.
-------------------------------	---

▷ 천국은 우주 공간 어느 세계에 존재하는게 아니라, 그 다른 세계가 있다.

비유) 부산에서 서울 갈려면 여러 지역을 걸쳐서 가듯이
천국도 그러하다. 가다가 셋각로 가면 안 된다.

▷ 영인체는 선영계 급에 영인체는 **영형체급**.
 낙원급에 영인체는 **생명체급**,
 성약급에 영인체는 **생명체급**.
 이 정도의 진리를 들어야 사람의 형태가 완벽하게 갖춰서 제대로 되요.

▷ 여러분이 영적세계에 대해서 깨달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육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영계를 제대로 알아요.
육계에 대해서 지식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영계에 대해서도 몰라요.

▷ 그 사람 행실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예화)

애가 나한테 잘해, **“나 한테 호감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나만 보면 날마다 땡땡 거리고 짜증나게 해,
 이거는 나한테 불만이 많구나,

;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은 행실로써 나타나듯이
 육계를 정확히 분석하면 영계를 알 수 있어요.

▷ 육신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는 애들은 영이 지혜롭고 똥똥해요.
 분별력이 있어 처세를 잘하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잘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부지런히 양육시키고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기 ▶ **결혼문제**

타 ㉠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
결혼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논할 수가 없어요.

㉡ 그 세계의 사랑관계와 이 세계의 사랑 관계는 차원이 다르데요.
이 세계 문화권하고 그 세계 문화권하고 같으면서도 다른 게 있어요.
차원적으로 같으면서도 다른 게 있어요.
그 세계 가서 배워야 이해 가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게 있어요.

㉢ 이 세계(육계)에 배우면 **‘영계는 왜 저렇까?’**
이렇게 오해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은 이 세계(육계)에서 안 알려줘요.
 근데 영계 가잖아요.
 그러면 **“아! 이런 건 당연하지.”** 이렇게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 육신 썼을 때 사고관하고
 영을 썼을 때 사고관하고 약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다.
 영계에서 배울 것은 영계 가야 배울 수 있다고
 옛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영계 가서 알 것이 있고, 육계에서 알 것이 있어요.

▷ 육계에만 치우치지 말고,
 내 안에 마음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영계의 근원의 세계가 있다.
 그 세계 말미암아 이 세계 지어졌다.
 그 세계를 본향이라 한다.
 진리 깨닫지 못하고 주님 못만나면 못간다.

비유)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영도 천국을 그리워 한다.

<30개론 강의자료>

영계론

선배 가정국 교육국

30개론 강의자료 (영계론)

펴 낸 이 : 선배 가정국 교육국

내용·편집 : 박 광섭 강도사

감 수 : 김 옥주 목사

발 행 일 : 2007. 4. 13

※ 교육국의 정식허가 없이 복사나 제본 행위는 금지합니다.

기타 내용에 관한 문의는 선배 가정국 교육국으로 연락 주세요.